

전남도,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자립 발판 제공

순천시 일자리박람회...2000여명 참여·70개 기관 동참
IT정보관·직업체험관·특강 등 체험형 축제로 큰 호응

전남도는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했으며, '일자리 꼭! 내 일(My Job)!'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와 자립의 발판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 정광현 순천부시장,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장, 장애인 구직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열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성공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구직 장애인의 참여 열기가 한층 높았다. 사전 온라인 접수자 150명을 비롯해 현장 면접과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찾으려는 장애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70개 참여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5개 기관은 현장 채용관, 45개 기관은 간접채용관을 운영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교육·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현장채용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협력해 운영했으며, (재)전남도문화재단, (재)전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남도 출연기관도 함께 참여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올해 박람회는 단순한 취업 행사를 넘어 체험형 일자리 축제로 진행됐다. 현장채용관 외에도 △IT정보관 △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일자리정보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 등 7개 영역의 부스가 마련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IT 정보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키오스크, 휠체어 재활 운동 기기 시연이 이뤄졌으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남 관광 메타버스 체험 부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직업체험관에선 (재)전남도문화재단이 새롭게 참여해 장애인예술인 작품 전시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예술을 통한 자립 가능성과 재능발굴의 장을 열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취업특강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기업 대표로 성장한 분이 댄스스포츠와 인형극을 활용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장애인 구직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통해 자립하고, 꿈을 실현하는 기회의 장으로 치러졌다"며 "참여한 기업에서도 이번 박

람회를 새로운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초로 개최된 전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는 700여명이 참여해 구직 활동을 펼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전

남도는 앞으로도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누구나 맘편한 진료...광주형 건강돌봄 주목

동·서구 통합건강센터 334명 등록...예방 중심 건강관리
사회적처방 건강관리소·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첫 선

광주시가 시작한 지역 중심 건강돌봄 체계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혁신 모델로 주목되고 있다.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부터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공공심아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등 광주시가 촘촘히 구축한 공공의료망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 동·서구 통합건강센터에 총 334명이 등록해 정기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71%인 235명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통합건강센터가 고령층의 '건강 돌봄'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16일 서구에 이어 동구에서 통합건강센터 시범 운영을 본격화했다. 보건소·북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통합건강센터 총 6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타 자치구까지 점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를 통해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건강센터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개별 운영되던 건강 서비스를 시민이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각 센터에서는 기초 건강검사와 생활

습관 설문을 바탕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통합건강평가와 치매검진, 정신건강, 금연, 고혈압·당뇨관리, 영양, 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31일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하나인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이 광산구 빛고을극민체육센터에 문을 열었다.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에서는 의료적 처방 외에 필요한 사회적 처방(함께 운동, 일상 대화, 관계 형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형 응급의료 시스템인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은 12월 중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실 병상 현황, 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광주시가 자체 개발했다.

응급의료플랫폼은 '응급실 뱅킹'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진 간 실시간 소통·전원 정보 공유를 지원해 응급대응 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심아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이용 환자가 6만 명을 돌파했다. 아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응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진료비도 응급실보다 낮아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여수·군산 등 타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강윤선 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광주형 건강돌봄 모델을 꾸준히 확대해 '어디서나, 누구나, 건강하게'를 실현하는 건강강력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며 "시민 누구나 아플 때는 마음 편히 진료받으며 건강한 일상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정준호 의원, 22일부터 의정보고회

'반드시 해내는 사람' 슬로건으로 의정활동 등 보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오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역구 권역별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정 의원이 지난 2년간 펼쳐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역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보고회는 22일 시화문화마을 대강당(두암동·문화동·석곡동·풍향동)을 시작으로, 28일 광주 YWCA 대강당(신안



정준호 의원은 "지난해 정치적 격변 속에서 대변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보고드리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조인철 의원, 서구 e편한세상 '이동국회' 성료

"주민과 호흡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지난 15일 서구 광천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이동 국회' 현장 소통 행사를 진행했다.

'이동 국회'는 국회의원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4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 문제, 생활 인프라 개선, 교통·안전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과 호흡하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항상 주민을 두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열린소통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 사장·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

안평환·홍기월 위원장 선임

광주시의회는 17일 광주관광공사 사장과 광주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관광공사 사장 인사청문 위원장은 안평환, 부위원장은 이귀순, 위원으로는 서임석·채은지·이명노·박수기·심창욱 의원이 선임됐다.

광주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 위원장은 홍기월, 부위원장은 박미정, 위원으로는 채은지·강수훈·심창욱·김나윤·조석호 의원이었다.

광주관광공사는 우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광주문화재단은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출연기관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포럼 광주생각' 창립 1주년
21일 송영길 대표 초청 강연

광주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포럼 광주생각' (상임대표 김일섭)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출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발전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광주 서구 금호로 278)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김일섭 상임대표는 이번 강연회를 시작으로 "광주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더 나아가 국민주권 시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혁명의 대전환시기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시민은 물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한다"로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조선대학교 특임교수 임명됐으며, 지난 13일에는 광양 커뮤니티센터에서 '광양, 여수 경제벨트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 빛났다...우수지자체 선정

기후부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서 우수사례로 발표
기업탄소액션·폭염정보통합서비스 개발 등 독창적 호평

광주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빛났다. 광주시는 17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 76건을 심사해 '탄소중립이행성과-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광주시와 경기도 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업탄소액션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자·출연기관 19개소 대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확대 운영도 선진사례로 인정받았다.

또 시민참여형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 1위(56%)를 기록했으며, '대자보포인트 시범사업'을 운영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다. 광주지방기상청과 협업해 '폭염정보통합서비스'를 개발,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등 독창적인 자체 사업을 발굴했다.

나병준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이자 광주형 탄소중립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는 17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경부의 '2025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